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2년도 표어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seoulchurch.or.kr

마태복음 강해

용서하는 자의 복

(마 6:14-15)

The Blessing of the Forgiver

(Matt. 6:14-15)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사랑의 뿌리는 용서입니다. 용서의 열매가 없는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Many people say that Christianity is a religion of love. The root of love is forgiveness. Love without the fruit of forgiveness is meaningless. The love of the cross revealed by Jesus Christ is the love that forgives our sins and faults. Just as God forgave us, so Jesus taught us how important it is that we forgive each other.

1. 용서해야 하는 이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 6:14-15).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과 과오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들의 과오를 용서해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은 늘 울분에 차 있습니다. 마음에 쓴 뿌리가 가득 합니다. 보복을 위한 칼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칼에 다치는 사람은 정작 자신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1. The reason why we must forgive

“For if you forgive men when they sin against you, your heavenly Father will also forgive you. But if you do not forgive men their sins, your Father will not forgive your sins” (Matt. 6:14-15).

The reason why we forgive other men’s falsehoods and mistakes is because we are forgiven our sins by God. Sins break the close relation between God and us. Thus, we must solve the problem of sin, and the unique way for solving it is that we must forgive one another.

Those who do not forgive others are filled with anger and full of bitterness of heart. They live their life with a sword for revenge. However, the man who is injured is actually himself. If we do not forgive anyone, we never enjoy God’s peace.

2. 용서의 방법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시 103:12-13),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사 43:25).

하나님은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을 뿐만 아니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시마다 때마다 과거를 들춰내고 공격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마 18:21-22). 예수님은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사도권을 회복시키시고 ‘내 양을 먹이라’는 놀라운 사명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2. The way of forgiveness

“As far as the east is from the west, so far has he removed our transgressions from us. As a father has compassion on his children, so the Lord has compassion on those who fear him (Ps. 18:12-13). “I, even I, am he who blots out your transgressions for my own sake, and remembers your sins no more” (Is. 43:25).

God says that He moved our transgressions far away from us and remembered our sins no more. Nevertheless, even though we say that we forgave others, at all times we dredge up the past and attack again. Peter gave Jesus a question, “How many times should I forgive others?” (Matt. 18:21-22). Jesus says that you must forgive others from seven times up to seventy times. It means that we must forgive them to the end. Peter denied Jesus, but Jesus recovered his calling gave him a surprising mission, ‘Feed my lambs!’

3. 용서할 수 있는 비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는 통로입니다. 그 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의 상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며, 그의 죽으심으로 길 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영원한 지옥불에서 타고 있어야 할 우리들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할 자들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깨어있게 만들고,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게 하는 도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3. The forgivable Secret

The fact that we look at Jesus Christ who shed His blood and died on the cross for us is the passage through which we can receive the power to forgive. By His wounds we are healed, He was crushed for our salvation, and by His death we who lost the path can return to God. Is it not we who died eternally because of our transgressions and sins? Isn’t it we who should be burning in hell? The Bible says that there is no one who cannot be forgiven. Those who gave us wounds and sufferings are rather tools that make us awake and earnestly rely on Jesus.

If we look at others with God’s eyes, there aren’t any sins that cannot be forgive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했던 축복의 통로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매듭을 모두 풀고 마음에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My beloved Christians!

I hope you will believe that those who made us fail are rather the blessed passage way that leads us closer to God. Then, by untying all knots in our heart in God’s grace, I sincerely pray that you and I will enjoy the freedom and peac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추석 연휴동안 주님을 슬프게 말자

- 성수주일(聖守主日) -

추석연휴가 시작되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았을 것이고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향할 예정이라고 매스컴에서 연일 보도하고 있다.

우리 기독교인이 명절만 되면 항상 어려움에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제사의 문제일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번 추석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시간으로 삼아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친척에게 전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고향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 그러나 안 믿는 가족들의 양심과 전도를 위해 삼가고 기도하는 추석연휴가 되도록 하자.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중추절(中秋節)

형편이 어려운 성도와 장애인 관련 기관에 구제금 전달

우리교회는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형편이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과 나눔의 기쁨을 함께 하였다.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각 교구담당 목사들은 주님의 이

름으로 위로하며 구제금(63명)을 전달하였고, 장애인 관련 기관(나자로의 집, 주몽재활원) 2곳에도 구제금을 전달하였다.

2012 사명자 대회

10월 7일, 주일 I, II, III부 예배시 발대식 가져

11월 25일 교회설립기념 주일까지 50일 동안 계속되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대장정인 "2012 사명자대회"가 10월 7일(주) 발대식과 함께 시작된다. 특별히 금년에는 VIP초대 새생명 축제를 11월 16일 금요일 낮, 17일 토요일 저녁 그리고 18일 주일 저녁에 갖는다.



- 예선-10.14(주) 교회학교 별
- 본선- 10.19(금) 오후 7시, 602호

페이스북 서울교회익투스
 (<http://www.facebook.com/seoulchthus>)
매일 국문 영문 그림 Q.T
서비스 실시 중

2012 성경암송대회가 오는 10월에 열린다. 암송범위는 빌립보서 1-4장(전장)이며 10월 14일(주) 각 교회학교 별로 예선을 치르고 10월19일(금) 오후 7시 602호에서 본선을 갖는다.

특히 II 미디어부(부장:오정수 장로)는 서울교회 익투스(<http://www.facebook.com/seoulchthus>)에 매일 빌립보서를 국문, 영문으로 두 구절씩 그림Q.T 형식으로 올리고 있다. 아직 시작하지 못한 성도들은 매일 올라오는 성구로 Q.T와 성경암송을 병행하여 신앙생활에 도움 받기 바란다.

서울교회 익투스페이스북은 네이버, 다음에서 '서울교회 익투스'로 검색가능하며 그림 Q.T는 회원 가입 없이도 볼 수 있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윤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65]

(문 63) 신 15:4에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했으나 11절에서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했으니 이 두 말씀은 서로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까?

(답) : 11절의 말씀은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에게 그 비싼 것을 낭비했다고 꾸지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즉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마 26:11)고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15:4-5에서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만 두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면 가난한 자가 항상 있어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그들에게서 키우시기 위해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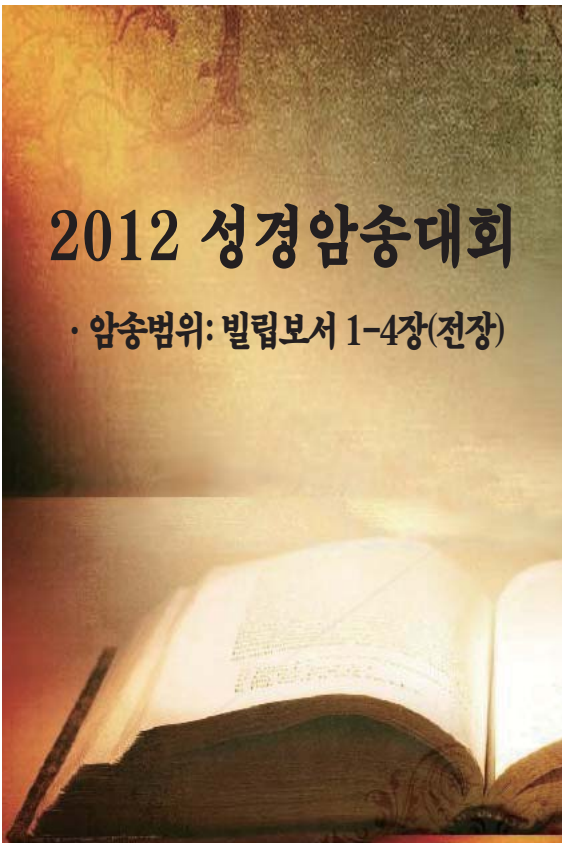
그러나 이스라엘은 성경적 표준에 항상 미달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가난한 자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룩함과 공평과 사랑의 결여는 그들 사회에 가난한 자를 항상 있게 하는 요인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많은 이 세상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가난한 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가진 성도들의 구제심을 기르기 위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항상 두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그들이 사는 지역의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서(신 15:8) 너그러운 마음으로 넉넉히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정녕 받게 될 복이 있으니 이스라엘은 가난한 땅에 정착하여 창성케 되고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 주기 때문이요 또한 하나님의 물질적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주 계속)

2012 성경암송대회

· 암송범위: 빌립보서 1-4장(전장)



2012 사명자대회를 준비하며

풍성한 기도의 응답과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를

노문환 장로 (2012 사명자대회 본부장)

서울교회가 설립되기까지 50일간 온 교회가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였던 일을 기억하여 금년에도 50일간 온 교회가 기도의 불길을 이어가며, 주님의 특은으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로서 주님의 지상 명령인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나의 주변에 있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까운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여 생명의 길에 동참케 하는 VIP 초대 새생명 축제를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50일 동안에 5회 이상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정하여 개인이나, 가족 또는 다락방별로 교회에 나와 공동 기도제목과 도고기도제목 그리고 VIP초대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며, 이 기간 중 토요일마다 온가족이 함께 나와 기도하는 6회의 온가족 새벽기도회와 마지막 한주간의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VIP초대 새생명 축제를 11월 16일 금요일 낮, 17일 토요일 저녁 그리고 18일 주일 저녁 3회에 걸쳐 실시하려고 합니다. VIP초대 대상자를 품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각자 매일 기도하는 중에 위 3회중 또는 18일 주일 1부, 2부 3부 예배시 적절한 시간에 맞춰 1회 교회로 초대하여 축제에 참여케 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이 가을 우리 주님께 바쳐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금년도 교회설립 기념주일인 11월 25일 주일에는 풍성한 기도의 응답과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를 피차 간증하며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는 참으로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추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명절 가운데 하나로 음력 8월 15일에 지킨다. 추석은 중추절(仲秋節), 가배(嘉俳), 가위 또는 한가위라고도 부른다. 중추절(仲秋節)이란 가을을 초추(初秋), 중추(中秋), 종추(終秋) 3달로 나눌 때 음력 8월이 중간에 들었으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추석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초막절(草幕節)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의 명절이다. 요한복음 7장 2절 이하에 의하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먼저 올라간 후 예수님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나중에 올라가셨다는 기록이 있다.
 본래 이 명절의 명칭은 초막절이라고 불리기 전에 수장절(收藏節)이라고 불렸다. 가을 추수기에 곡식을 밭에서 거두어 저장한다는 의미로 수장절이라고 하였다(출23:16). 그래서 출애굽기 34:22에서 "가을(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였다. 이 수장절이 음력으로는 8월 15일이었으며,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이었다. 그러므로 수장절은 농경사회에서 연중 마지막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다.
 그런데 후대에 와서 수장절에 7일간 초막에 거하

면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게 된 후로부터는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초막절이라고 하였다. 레위기 23:34는 "일곱째 달 열 닷새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고 하였으며, 23:42-43은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수장절은 단순히 그해의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서 또한 초막절로 지켜졌다.
 이와 같이 유대인의 초막절의 의미가 기독교의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때 우리나라의 추석이 초막절의 의미를 잘 부여한다면 추석을 기독교 문화 안에 잘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가위에 햇곡식으로 송편을 만들어 먹으며 한 해 동안 비와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한다면 우리의 추석이 성경적인 초막절과 추수감사절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해병대 교육훈련단 진중세례식

지난 9월 22일 (토)에 있었던 해병대 교육훈련단 진중세례식 전경



2012 스테반회 체육대회 개최

10월6일(토) 09:30~16:00, 대치미도공원(미도아파트 옆)에서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 10월6일(토) 서울교회 스테반회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제1,2스테반회가 주관하고 우리교회 목사, 장로, 스테반회는 퇴직사, 교육 중인 피택집사를 초청한다.



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목사님과 장로님, 제1스테반회 팀, 제2스테반회 팀, 교육 중인 피택집사 팀이다. 장소는 미도아파트 옆(하어울역 쪽)에 있는 대치미도공원이다. 점심과 간식 그리고 기념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은 관심을 갖고, 당일 대치미도공원으로 직접 오면 된다.

'사랑의 바자' 행사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이제는 사명자대회를 앞두고 서울교회의 중직자들이 모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체력을 단련하고 감사와 친교를 나누고자 한다.

서울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체력증진과 아름다운 교제에 꼭 동참하여 새 힘을 얻기 바란다.

피구, 배구, 족구와 간단한 게임을 하는데 4개 팀

2013학년도 호산나대학 입학설명회 개최

입학원서 교부 : 9월 8일(토) ~ 10월 19일(금)



안내, 입학전형 및 입학 시험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학생들의 스쿨버스 운영 및 기숙사 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고 라운딩을 통해 진행하였다.

개교 6주년을 맞이한 호산나대학은 서울교회의 기독교 정신과 장애학생들의 Better person 육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장애인들의 꿈이 될 수 있는 대학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2012년 9월 8일(토) 오전 10시 30분 호산나대학(아가페타운) 세미나실에서 2013학년도 호산나대학 입학설명회가 있었다. 이날 입학설명회에서는 전국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학부모 및 교사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2013학년도 입학과 관련한 학교 전반적

* 호산나대학의 입학원서 교부 및 접수는 9월 8일(토) ~ 10월 19일(금) 까지 진행 될 예정이며, 입학 시험은 10월 27일(토)에 있을 예정이다.

호산나대학의 입학원서 교부 및 입학시험과 관련하여 서울교회 성도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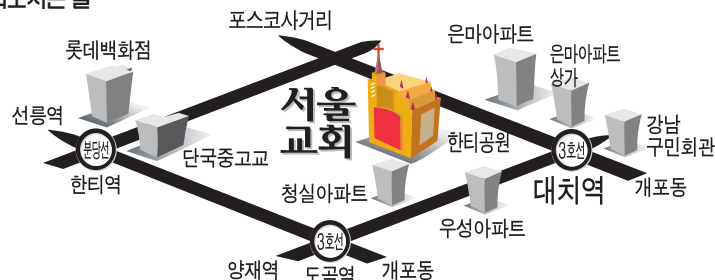
서울 강남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 족구대회 우승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제 42회 학술공개세미나

WEA·WCC Dialogue

A New Horizon of World Christianity
- Convergence Between the Ecumenical and Evangelical Understandings of Unity and Mission -

■ 강사 ■

- 이종윤 박사 /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 Thomas Schirmacher 박사 / WEA 신학위원장
- Martin Robra 박사 / WCC 프로그램위원장
- 금주섭 박사 / WCC 선교와 전도위원회 총무
- 김상복 박사 / WEA 실행위원회위원장

- 일시 : 2012. 10. 22. 월 AM 10:00 ~ PM 6:00
- 장소 : 서울교회 | 서울 강남구 대치동 210. TEL: (02) 558-1106

주최 | (재)한국기독교학술원 Academia Christiana of Korea

■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0월6일(토) 사랑의 쌀운동 조찬기도회와 몽골 울란바타르대학교 이사회 설교를 한다.
- 이사: 정덕 집사 임인자 권사(9-12다락방)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232 성원쌍태빌 106-1306 전화 031)573-3136
- 주간식당봉사: 빌립선교회(9.30) 안드레선교회(10.7)
- 금주의 식사: 김양숙 권사 가정 (자녀결혼 감사하며)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영적 축복이 넘치며 여행하시는 성도님들 안전하도록
2. 다음주일에 발대식을 갖는 사명자대회가 그 귀한 목적들을 성취함으로 온 가정이 하나되고 영혼추수의 한 마당이 되도록
3. 성경암송대회를 통해서 우리교회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계기가 되도록